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6.3~7.12
매일새벽 4:45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 세계 65개국에서 함께 기도하는 호렙산 기도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삼상 12:16)이란 주제로 6월 3일부터 40일간 진행되고 있는 제36회 호렙산 기도회는 어느덧 4주간의 여정을 지나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광림의 성도들은 기도의 결실이 곳곳에 열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일을 목도하기를 기대하며 매일 새벽 호렙에 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은 실의와 좌절에 빠졌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장소이다.

1989년 성령강림절을 기점으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36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40일간 새벽을 깨우며 진행되어 온 호렙산 기도회는 세계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응답을 받아왔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광림의 오랜 전통이자 적극적인 신앙을 대변하는 광림

교회만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아 주어진 환경을 타하지만 믿는 성도인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라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놀라운 힘이 있음을 강조했다.

매일 새벽 4시 45분, 호렙산 기도회는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동시에 열리며 9개국 11개 선교센터를 비롯해 전 세계 65개국에서 하루 1,300여 명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뜨거운 찬양, 은혜의 말씀, 눈물의 기도가 있는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매일 한마음 한뜻

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 40일간 호렙의 여정을 위해,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교회, 해외 선교지, 일터와 가정, 이웃과 환우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성도들은 특별히 터키 안다옥 개신교회 재건과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교사동, 기숙사동 건축을 위해 매일 새벽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교역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순으로 특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으며 앞으로 교회학교의 특송을 남겨두고 있다.

교회학교에서는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을 기획하여 ‘모두의 호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7월 6일 토요일에는 기도회 후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국과 교구목사의 안수 기도회가 진행된다.

7월 6일 토요일 기도회 후에는 본당 로비에

서 청장년부 주관하에 사진 촬영을 원하는 성도, 가정,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11회 소망사진관이 열린다.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날인 7월 12일 금요일에는 성찬식을 끝으로 40일간 은혜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목회자 세미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청년선교국의 국내외 선교, 전교인 여름수련회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희운 기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 돈, 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한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런 대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모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

본문 말씀에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99마리의 양이 있기에 한 마리 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밤중에 양을 찾다는 것은 비생산적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혹여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들짐승에게 잡힐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목자의 기쁨은 귀한 생명을 되찾음에서 시작합니다. 목자와 같이 예수님도 생명을 찾음으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토마스 해리스(Thomas A. Harris)는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에서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는 훌륭하지 않지만 넌 훌륭해’입니다. 이는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너도 훌륭하지 않아’입니다.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훌륭하지만 너는 아니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너도 훌륭해’입니다. 이는 긍정적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긍정적 소망의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축복’(Bless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Blood)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1~7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데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	---

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자는 것,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희생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기쁨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집중하며,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행복 조건들을 파괴합니다. 이기심을 통한 개인주의가 극대화될 때, 공공의 개념은 무너지고 무질서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심방을 갔습니다. 성도의 집에 들어가니 어린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그러자 그 아이는 목사님께 “목사님도 인형을 좋아하세요? 여기서 어떤 인형이 제일 맘에 드세요? 저는 이 인형을 가장 좋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가 찢겨져 망가진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다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런 인형을 좋아하니?” 아이는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랑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회개하고 돌아옴의 기쁨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나눈 본문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한 뒤, 초라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어렸을 때 인디언 도끼를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체리나무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워싱턴은 체리나무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죄책감이 커져 결국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크게 혼이 날 줄 알았던 워싱턴은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의 정직함으로 인해 나는 행복하다.” 워싱턴은 아버지의 말을 동기부여 삼아 정직하게 살아갔고, 그는 장차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워싱턴처럼 우리도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은 결론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돌아섬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림교회 로비에서 만나요!

제36회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모두의 호렙’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토요일은 부모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아이들로 인해 매우 분주하다. 이른 새벽부터 광림교회 본당 로비에서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 모인 아이들의 눈망울은 기대감에 반짝거린다. 이번에는 단순히 출석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 도착한 지역의 스티커를 붙이는 식이다. 아이들은 주사위를 던지는 재미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지역에 도착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을 기다린다.

올해 교회학교가 준비한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의 주제는 바로 ‘모두의 호렙’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에서 착안한 것으로, 출석 인증과 주사위 게임을 통해 호렙산에 오르는 길이 더욱 흥미롭고 재미를 더해준다. 먼저 아이들이 도착하면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주사위를 던지고, 도착한 지역의 스티커를 받아 스티커 모음판에 붙여 출석 인증을 한다. 아이들이 던진 주사위 수만큼 말판이 이동

하는데, 주사위를 던져 말이 돌면 10회 기준 완주자 등장 시 준비한 왕관과 망토를 두르고 특별한 사진 촬영을 한다. 또한 처음(START) 칸 도착 때, 10·20·30회 완주자는 시상을 하며, 주사위를 던져 도착한 지역이 특수 지역인 경우 ‘모두의 마블’로고 스티커가 지급된다. 출석을 많이 할수록 주사위 던지기를 더 많이 하고, 말판을 완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모두의 호렙 운영 시간은 4시 10분부터 45분까지, 기도회 전에 운영된다.

임재철 목사(교회학교)는 “토요일 이른 새벽에는 가족과 함께 호렙산에 올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아 여느 날보다 활기차다”면서, “남은 호렙산 기도회에도 교회학교의 수많은 친구들이 참석해 주사위도 던지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렙산 마지막 토요일인 7월 6일에는 교회학교 호렙산 특송과 예배 후 안수식이 진행된다.

한혜선 기자

호렙산의 열기, 선교구 연합속회로 이어져



새벽 4시 45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시작되는 호렙산 기도회의 함성은 토요일이 되면 교회 곳곳에서 선교구 연합 모임으로 그 열기를 이어간다. 지난 6월 15일(토) 오전 6시, 3선교구에 속한 7, 8, 9교구 성도들은 교육관 2층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덕민 목사는 ‘승리를 위한 다윗의 기도’(시 20:1-9)라는 제목으로 전쟁에 앞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는 당연히 가져오겠지만 힘들게 이기는 것이 아닌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아갔다.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는대로 이루게 할 것이며 이러한 승리를 안겨 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또 그 이름을 높이 부를 때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윗이 가진 승리의 법칙이다. 호렙산에 올라와 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도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한 것 이상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날 1선교구는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 6선교구는 시온성전에서 그리고 8선교구와 9선교구에서도 호렙산 기도회를 끝낸 6시에 선교구별로 각각 모여 예배를 드렸다.

6월 29일(토) 5선교구는 본당 지하 1층 성가대실에서, 10선교구는 사회봉사관 4층에서 연합속회를 드렸다.

특히 4선교구와 7선교구는 호렙산 기간 내내 매주 토요일 모여 연합속회 예배를 드린다. 4선교구는 본당 지하 1층 애찬관에서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 찬양으로 악기 연주나 독창, 중창을 부르기도 한다. 7선교구는 본당 1층 벨엘성전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19, 20, 21교구별로 부부 합창이나 중창, 그리고 교회학교 합창 등 특송을 한 후 속회를 진행한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삼상 12:16) 이란 주제로 6월 3일~7월 12일까지 40일간 진행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 현수막



호렙산 기도회 로고라이트



호렙산 기도회 기도의 벽

담임목사 동정



6/3 ~ 7/12 호렙산 기도회

6/30 세례예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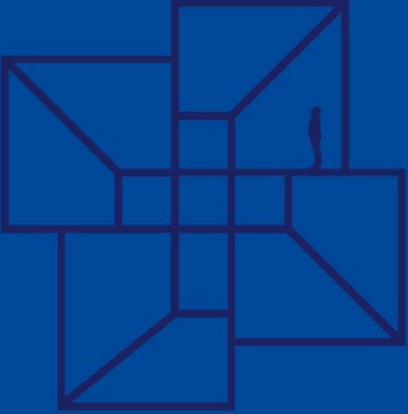




제36회
호렘산 기도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삼상 12:16)







목회현장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경찰 대학 개혁 추진으로 대학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부 중심의 기수 문화가 폐쇄적인 순혈주의

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편입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경찰대학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이 설립되어 석·박사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위(6급)로 공채에 합격한 경찰간부후보생들이 4학년 학생들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줄어든 학부 티오를 대체해서 변호사를 선발하여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총경(경찰서장) 직무교육이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국제대테러센터가 대학에 설립되어 세계 각 나라의 경찰관들이 경찰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한국 선교사 파송 국가의 수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 국가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선교하게 하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대학에 온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학부생, 대학원생, 변호사, 총경, 외국인 학생들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지표는 '하나 됨'입니다. 악령은 분열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마디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성과 여성, 늙은이와 젊은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소리의 악기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지휘에 맞추어 다양한 지체들이 일치된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경찰대학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자칫 분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저는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된 심정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오직 지휘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권면하여 경찰대학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재근 목사(경찰대학)

광림남교회

새가족 영성투어를 다녀오며...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준비와 함께 기대하던 새가족 영성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새가족위원장님과 위원들은 일찍 교회에 모여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올라 목사님의 기도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도 좋고 소풍 가는 학생들처럼 기쁜 마음을 안고 본당으로 향했습니다. 목회선교지원실의 안내를 받아 본당 대예배실과 사회봉사관을 둘러보며 광림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새가족위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벨엘성전에 모여 사모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광림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당 투어를 마치고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김수혜 권사님을 시작으로 여러 위원들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였는지를 나누주셨는데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하여 유명 맛집 못지않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신성섭 장로님의 안내로

수도원 대예배실과 살롬하우스, 역사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예배실 구석구석을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다락방 채플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기도공원을 산책했고,故김선도 감독님의 묘소에 가서 기도하며 감독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새가족들과 함께 했던 여정이었기에 의미가 있었고, 저의 믿음도 더 자랄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커진 듯합니다. 너무도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결에서 도와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듯, 새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장길순 집사(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새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 탐방



지난 5월 30일(목), 광림북교회에서는 4Step 1단계를 수료하신 새가족들과 함께 한국 기독교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 배우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뤄진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1955년에 설립되어 초교파적으로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수정의 마태전과 같은 초기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 배재학당과 연희전문학교와 같은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영역의 선교 문서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박물관 옆에는 식물 크기의 5분의 1로 축소·복원해 놓은 장대현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94년 평양에 설립된 교회로, 1907년 대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되었던 곳이며, 1907년 1월 6일 평안남도 사경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을 때에 약 1천 명의 회중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박물관 곳곳에는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의 활동과 초기 한국 감리교의 다양한

사회사업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 새가족과 기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배움과 교제, 그리고 연합이라는 세 겹줄로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광림북교회는 매해 봄과 가을, 4Step 1단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분들과 함께 한국 기독교 역사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인천시 강화로, 올 봄에는 경기도 이천으로 다녀오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과 속장과 선교회장이 동행하여 서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림북교회가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 간 교제의 장이 풍성해져서 광림교회 신앙 전통을 건강하게 배워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에스토니아, 발틱감리교신학교와 광림채플

개교 30주년 기념 행사, 광림교회에 감사의 뜻 전해



30주년 기념식 및 학위수여식



발틱감리교신학교 학생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토니아에는 광림교회의 지원으로 세워진 발틱미션센터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감리교회 선교 역사는 깊지만, 소비에트연방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한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최초의 선교는 1907년 독일계 미국인인 조지 A.시몬스 감리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6월 9일 사레마(Saaremaa) 섬에서 모라비안 성도들과 함

께 첫 예배를 드렸고, 1912년 10월 28일 에스토니아 최초의 감리교회 건물이 쿠레사레(Kuressaare)에서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3월 3일 수도 탈린에도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리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 소비에트 연방에 점령당하며 몇몇 교인들이 탄압을 받았고 4명의 감리교목사들이 체포되어 추방된 후 처형되었습니다. 독일 점령기간(1941~1944) 동안 종교 탄압은 완화되었지만, 1944년 소련의 공습으로 탈린감리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지나 1991년 에스토니아가 소련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았고, 감리교회 복원을 위한 운동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1994년 8월 54명의 학생으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1944년 폭격 이후 교회 건물도 신학교 건물도 없어서 안식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WMC)에서는 광림교회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시 100

만 달러를 지원하여 2000년에 발틱미션센터를 봉헌하게 되었고 그 안에 발틱감리교신학교(BMTS)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개교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 센터는 배 모양으로 지어져 발트 해로부터 방주가 에스토니아로 들어오는 것을 형상화했습니다. 발틱미션센터는 특별히 채플의 이름을 ‘광림채플’이라고 명명했으며, 에스토니아 감리교회 100주년과 110주년 행사 때 김신도 감독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김정석 담임목사는 발틱감리교신학교의 국제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발틱감리교신학교가 지난 6월 15일 개교 30주년 기념식에 김신도 감독과 김정석 담임목사를 소개하고 광림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발틱미션센터가 좋은 목회자를 배출해 인접한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청년부

국내교육선교, 해외단기선교



국내교육선교(13개 지역)

광림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과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며 전국에 있는 미자립교회 여름수련회를 위한 국내교육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2024 국내교육선교는 전국 13개 지역, 110개 교회, 1,000명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내교육선교는 ‘기도할래요’(살전 5:16~18)라는 주제로 8월 1일(목)부터 익산, 충주, 고성 지역 등을 시작으로, 부산, 예산, 강화, 부안, 화성, 가평, 남양주, 이천, 당진, 용인 지역에서 진행된다.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부는 6~7월 두 달간 교구와 속회를 중심으로 선교팀을 구성하였고,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3주간의 강습회와 팀 모임들을 통해 말씀과 찬양, 공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해외단기선교(3개국)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2024년 하반기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3개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할 예정이다. 먼저 태국 선교팀은 7월 18일에 치앙마이로 출발할 예정이며 포푸라 지역 루업타이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할 예정이다. 태국 선교팀은 현지 원주민 어린이

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필리핀 선교팀은 8월 8일 클락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소수 민족들을 위해 세워진 8개의 현지 교회를 방문한다. 이번 선교에서는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 제63번째 발렌달락미션교회의 봉헌식이 예정되어 있다. 봉헌식 이후에는 까멘시타교회로 이동하여 사역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위집, 피아노, 난타, 인형극 등의 아카데미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선교팀은 8월 12일 호치민으로 출발하여 베트남 광림미션센터를 거점으로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고아원인 폭탕보육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미니 운동회, 성극 등의 문화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2024년 여름 LFC 광림 청년부는 국내에 있는 교회학교와 해외에 있는 선교지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다.

정영옥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소망사진관, 믿음의 추억 전해

제11회 소망사진관이 7월 6일(토) 본당 로비에서 호렙산 기도회 후에 진행된다. 매년 호렙산 기도회 기간 마지막 토요일에 가족 및 속원과 함께 호렙산 기도회에 오르는 성도들을 위해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에서 주관하는 소망사진관은 호렙산 기도회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 되기를 바라며 시작됐다. 지금까지 약 1천 팀, 2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사진을 통해 신앙의 기록을 선물했다.

이번 소망사진관 촬영 장소는 본당 로비 기도의 벽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도의 벽은 호렙산 기도회 주제 포스터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메모지에 적혀 채워져 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게 된다.

소망사진관의 현장 진행을 위해서 청장년부 임원들이 섬길 예정이다. 촬영한 사진은 기본 사이즈를 무료로 제공하며, 추가 인화 또는 액자 구매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판매 수익은 해외선교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보정 작업을 거친 후에 청장년부 모임 장소인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B홀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소망사진관을 10년 동안 섬기고 있는 명용인 집사는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가듯 소망사진관을 통해 신앙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쌓여가는 아름답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소망사진관은 수년간 찍은 호렙산 기도회의 사진을 보며 믿음의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유심원 전도사(청장년부)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0-1



바울의 전도와 기독교인이 된 간수 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행 16:29~32)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은 하루가 다르게 크게 성장했다. 바나바와 바울(사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을 낮추어 가진 이름임)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심한 박해로 위축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계속 부흥하였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恩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와 교사들도 많아졌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두 사람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였다. 또한, 두 사람을 도와줄 동료로 마가(요한)가 동행하였다. 이렇게 세 명의 선교사는 실루기아로 내려가 구브로(키프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 곧바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섬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로마

의 총독이 있는 바보에 이르렀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웬만해서는 헐잡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에수라는 유대인 마술사는 비뚤어진 사람으로, 선지자 행세를 하는 박수무당이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던 총독은 그들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바에수가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에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바에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꾀와 악행을 저지르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직접 부딪쳤으니,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바에수는 앞이 보이지 않아 주변을 더듬거렸다. 이 모습을 본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바보를 떠난 바나바와 바울은 배를 타고 버가(현재 터키 서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갔다. 그들은 육로를 이용해 북쪽으로 올라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여러 개가 있었음)으로 갈 예정이었다. 이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복음을 전파하며 겪은 고생이 마가를 지치게 한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마가와 헤어진 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성령에 의지해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다. 유대인 사회는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분리될 지경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이었다. 이후 유대인 지도층의 핍박이 심해져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를 옮겼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역시 유대인 반대자들은 두 사람을 핍박하였으며 심지어 돌로 쳐죽일 기세였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와 루스드라, 더베와 인근 성으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루스드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자리에 앉은뱅이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받는 모습이 역력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발로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러자 앉은뱅이는 순식간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꺾충꺾충 뛰기도 하였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말로 외쳤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 눈이 멀게 된 바에수_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바에수가 바울의 꾸짖음에 눈이 멀게 되는 장면이다. 라파엘로의 작품.

▲ 이단을 질타하는 바울과 바나바_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다. 니콜라스 베르헨의 작품.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Zeu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제왕)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Hermes, 제우스 신의 대변인)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두 사람에게 달려와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사태를 파악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미신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열변에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그들의 제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 후 이전에 선교 활동을 하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유대인 반대자들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심하게 때린 후 성 밖으로 끌고 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참 후 의식을 되찾은 바울은 간신히 일어났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남쪽의 더베로 떠났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